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인플레이션 억제와 지급준비율 인상

-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3월 25일부터 0.5%p 인상하기로 결정함.
 - 중국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4.9%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들어 세 번째, 작년 말 이래로 9번째로 지급준비율을 인상함.
 - 이번 인상으로 대형은행의 지급준비율은 20%, 중소형은행은 16.5%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, 중국 정부는 약 3,500억위안의 유동성 흡수를 통한 물가상승 압력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.

- 중국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화 긴축 정책의 유지를 결정했으며, 향후 통화 긴축 정책의 지속 여부 및 위안화 절상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.
 - 중국 정부가 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폭발, 중동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통화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물가안정 목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굳은 의지가 반영되면서 지급준비율이 인상됨.
 - 일부 전문가들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를 위해 지급준비율 인상, 기준금리 인상, 공개시장조작 등의 통화량 억제 정책들이 상당기간 효과를 가질 것이며 이를 감내하는 시장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함.
 -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통화량 억제를 통한 통화 긴축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통화 긴축 정책의 강도가 완화되고 위안화 절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함.
 - 지급준비율의 인상 여력이 점차 고갈되고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안화 절상이 될 것이며, 따라서 위안화 절상 압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함.

(China Raises Reserve Ratio for Banks, Wall Street Journal, 3/22)